

2007. 11. 19 제179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11. 19 제17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영국의 소음공해 관리: 런던의 '소음지도'

[해외출장 리포트]

나고야, 고베市の 재가노인 보호 및 지원정책

도시경영·경제

1. 민관 협동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오사카)
2. '어린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안건 입법화 검토 (브라질)
3. 행정개혁 원칙법 실행보고서 발표 (베를린)
4. 한 분야의 대표기업 순회방문 행사 마련 (베를린)
5. 창업 지원 홈페이지 운영 (캘리포니아州 산호세市)
6. 세금 체계를 게임으로 배우는 행사 개최 (도쿄都 이타바시區)

복지·문화

7. 문화자산 디지털 보존사업 추진 (오사카府)
8. 유기농식품 전문시장 완공 예정 (브라질 쿠리치바市)
9.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스포츠 프로그램 시행 (런던)

목 차

10. 비만 해결을 위한 미래전략 발표 (영국)
11. 3살 미만 유아 보육기관 지원 확대 (베를린)
12. 자녀양육 지원 상품권 배포 (도쿄都 분쿄區)
13. ‘창조도시 교류·과건사업’ 시행 (요코하마)

도시환경

14. ‘내 동네, 내 생활 프로젝트’ 실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15. 산업폐기물 전자관리시스템 시행 (일본)
16. 프레온 회수·과과법 개정안 시행 (일본)
17. 편의점과 ‘G30 에코 파트너 협정’ 체결 (요코하마)

도시교통

18. 낡은 육교 교체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정보전시회 개최 (런던)
19. 교통흐름에 따라 조절되는 신호등 설치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건설·주택

20. 도심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 건설 (로스앤젤레스)
21. 저가주택 공급의 사업성 검토양식 개선 (런던)
22. 녹색지붕과 녹색벽 개발 계획 (런던)

방재·안전

23. 우수 방화(防火) 건물 인증제 실시 (도쿄)
24. 긴급 지진속보 제공 (일본)

[벤치마킹 사례]

영국의 소음공해 관리: 런던의 ‘소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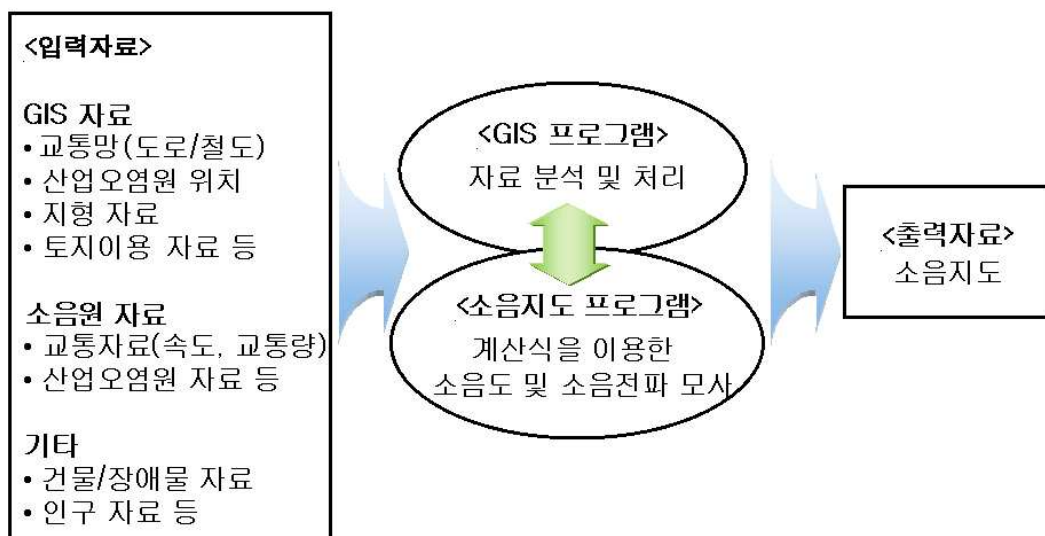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효과적인 소음공해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Noise Mapping England Project’의 일환으로 런던市 소음지도를 제작해 환경소음 관리와 평가에 이용하고 있음.

- 1990년대에 유럽에서 소음공해 관리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처음 제시한 소음지도는, 이론적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실험결과로 얻은 경험식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지역의 소음 정도와 분포를 색깔별로 표시한 지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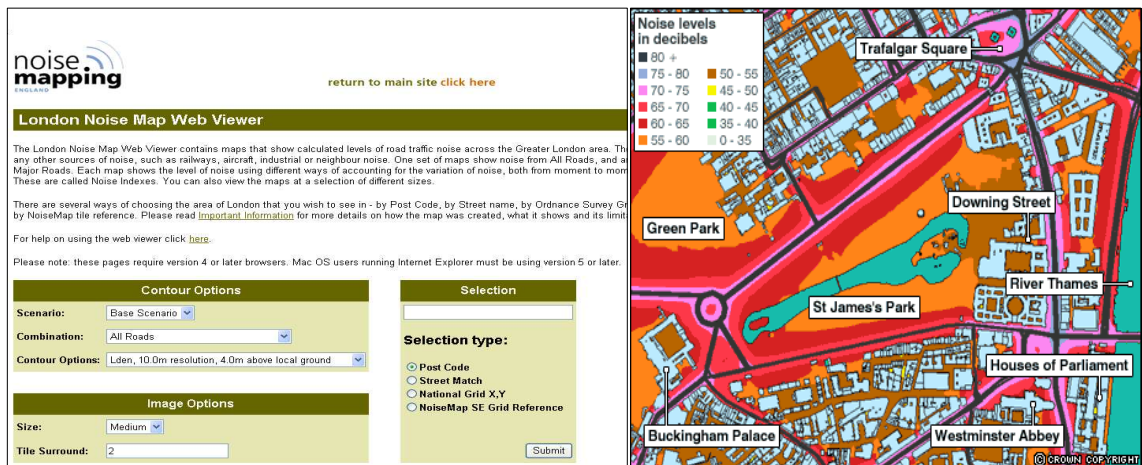
·현재 유럽연합(EU)은 인구 25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소음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04년에 런던市 전체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관심 지역의 소음 정도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다양한 입력자료, GIS 시스템, 소음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음지도 제작과정

- 1600km² 면적의 런던市를 가로, 세로 10m의 격자간격으로 나눔. 그런 다음 해당 지역의 교통량이나 교통속도, 도로 폭 및 표면 특징, 건물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도로에서 유발되는 소음 정도와 소음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소멸되는 정도를 계산함.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지상 4m 높이에서의 소음 정도를 표시함.
- 현재 도로교통뿐 아니라 항공, 철도, 산업체의 소음공해도를 추가해, 상호 영향관계를 포함하는 복합소음에 대한 도시 전반의 환경 소음지도 작성작업을 진행 중임.



우편번호나 거리 이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볼 수 있음(www.noisemapping.org).

<해설 및 평가>

-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질병 악화로 조기 사망하고 있음.
- 특히 소음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른 공해에 비해 유해성이 간과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소음공해 대응책으로 소음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몇 개 지점에서만 소음을 측정하면 측정지점 주변의 소음 크기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무리가 있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음지도를 제작했음.
- 소음공해의 공간적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는 지역 전반에 걸친 소음공해의 현황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의 경우 교통소음이 생활소음이나 공장소음 등 다른 소음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교통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향후 소음공해 관리의 주요 대상임.
 -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요지역 30개 지점 150개소에서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온(靜穩) 시설 주변에 도로를 신·증설할 때는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 개 지점의 소음도 측정으로는 측정지점 주변의 소음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 대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음지도를 만들어 왔으며, 2007년 5월부터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區 전체의 소음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소음공해 관리를 위한 소음지도는 아직 제작되지 않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음공해 관리를 위한 소음지도 제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소음원의 설정기준, 예측식, 격자크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소음지도 제작에 있어 기술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 전체에 대한 소음지도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음공해에 대처할 수 있으며, 소음지도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소음원이 혼재된 경우 몇 개 지점에서의 개별적인 측정만으로는 각 소음원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하지만 소음지도를 이용할 경우 소음원이 혼재된 지역에서도 주 소음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음공해 저감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다양한 소음 저감대책의 개별적 효과를 더욱 쉽게 평가할 수 있고, 소음공해에 노출되는 인구 수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인체 위해성을 고려한 영향 예측 및 평가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음.
 - 소음기준 초과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연동해 환경영향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대기오염 지도와 연계해 향후 소음공해와 대기오염을 종합한 환경지도 수립에 이용할 수 있음.

/최유진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yjchoi@sdi.re.kr)

[해외출장 리포트]

나고야, 고베市の 재가노인 보호 및 지원정책

<개요>

- ‘서울시 치매노인 및 수발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일본 나고야, 고베 지역을 방문함.
 - 이 지역의 치매관리시스템과 재가(在家)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또한 종합복지타운,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시설, 지역밀착형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재가노인 지원시설을 방문함.

<주요내용>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한 개호(介護) 예방사업 확대
 - 일본정부가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에 개정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케어’(지역사회 단위로 실시되는 요양사업)와 ‘개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함. 개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포괄지원 센터를 일상생활권역마다 설치해 지역 케어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함.
 -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보건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 사회복지사의 3개 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돼 종합적, 포괄적, 지속적인 지역포괄 지원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요지원(要支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요개호보다 낮은 단계) 1, 2단계 노인과 특정 고령자(요지원·요개호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노인)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노인 권익 옹호(노인 학대 및 연금 관리,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실시)
 - 건강,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 상담
 - 개호보험 케이스 매니저에 대한 지도, 지원

- 약 45만 명의 노인인구가 있는 나고야市の 경우 현재 29개소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한 개소당 200~400명의 요지원 노인에 대한 케어플랜을 실시하고 있음.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노인복지서비스의 '예방'기능 강화

-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 수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획기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이나, 지급대상이 1~3단계로 제한적임. 따라서 생활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촉진하는 예방 중시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노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요보호 위험군의 노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개호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요보호 위험군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사업을 주 기능으로 담당하는 원스톱 노인 종합지원서비스의 지역단위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區마다 설치돼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돼 있음. 하지만 대부분 주간(晝間) 보호,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내 요보호 위험군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종합노인 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區 단위로 설치돼 있는 독거노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요보호 위험군 노인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김선자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1. 민관 협동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오사카)

- 일본 오사카市는 '(주)꿈의 거리 창조위원회'와 협력해 이 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함.
 - 이 사업은, 행정관청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경비 부담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임.
 - 오사카市가 생활 가이드북을 비롯한 시정정보를 정기적으로 (주)꿈의 거리 창조위원회에 제공해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 수도국 위치 및 연락처, 민원상담 정보 등의 시정정보와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창문이 깨져 수리업자를 찾는 등 민간 서비스 정보를 원할 경우, 이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의 정보를 알려주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임.
 - 민관 협력 사이트 개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와 함께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www.city.osaka.jp/keieikikakushitsu/press/20071015.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생활정보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민생활 관련 시정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 입장에서 폭넓은 생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꿈의 거리 창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kaketsuke-can.com)는 일본 전역의 지역별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 PC 수리, 화장실 누수 수리, 해충 구제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거주지 근처의 민간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콘텐츠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정보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민간 포털사이트와의 콘텐츠 공동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더욱 쉽게 시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GIS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공개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웹커뮤니티를 민간 포털사이트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2. ‘어린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안건 입법화 검토 (브라질)

○ 브라질 하원은 ‘어린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안건의 입법화를 검토 중임.

- 2006년 10월에 실시한 ‘어린이 국회 프로젝트’를 통해 제출된 수많은 안건 중 3건이 최종 선정됐는데, 그 중 하나가 10세 어린이가 제출한 것임.
- 이 어린이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에게 학비가 면제되는 공립학교 입학 우선권을 주고, 공립대학에 입학쿼터제를 도입해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제출함.
- ‘어린이 국회’는 1년에 1차례 열며, 2007년에는 10월 25일에 개최됐음. 어린이는 하루 동안 임시 국회의원이 돼 국회 의정활동을 체험함.
- 어린이가 제출한 안건의 입법화 검토는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71021/not_imp68281,0.php)

3. 행정개혁 원칙법 실행보고서 발표 (베를린)

한줄 뉴스

<영국>

- 런던개발청, 크리스털 팰리스 공원에 16만㎡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역사성을 고려한 조경을 만드는 재생계획 발표

- 사회적 기업 연합회,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할 홍보대사로 25명의 기업인 위촉

○ 2007년 10월 23일 베를린市 내각은 市와 區 행정에서의 행정개혁 원칙법(VGG: Verwaltungsreform-Grundsätze-Gesetz) 실행보고서를 발표함. 행정개혁 원칙법은 구조, 목표 협약에 대한 내부 조정, 시민 지향, 베를린市 행정의 현대적 인사행정 내용을 규정함.

-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은 행정개혁 원칙법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음.

·한 예로, 市와 구청 간에 시민서비스에 대한 영역 및 목표 합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

·행정개혁 기본법에서 표준화된 조직 운영 기본원칙의 활용은 행정수행에 있어 실제적인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한다고 평가받음.

- 내각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2007년 6월 12일 의결된 행정 현대화 프로그램인 '서비스 도시 베를린'(ServiceStadt Berlin)이 있음.

·현대화하는 서비스기업을 위해 베를린市 행정이 지속적인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질적 기준 준수와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가 중요한 목표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0/23/87448/index.html)

4. 한 분야의 대표기업 순회방문 행사 마련 (베를린)

○ 2007년 10월 15일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베를린市 소재 대표기업을 순

회방문하는 행사를 열었음.

- 이는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이 산업계와 대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례적으로 만나오던 방식을 변화한 것임.
 - 그동안은 개인적 만남, 개별 기업방문, 분야별 회의 개최 등의 방식이었음.
 - 새로운 방식은 하루 동안 한 분야의 여러 기업을 순회방문하는 것임.

- 이번 방문 대상기업은 전자산업 및 기계공학 관련 기업으로, 두 영역은 오늘날 혁신 정도가 높고 전 세계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자산업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산업 분야며, 지멘스나 AEG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있음. 기계공학은 산업의 중심축임.

- 이번 행사는 2007년 10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음.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이 지멘스社 발전사업부, 델타텍 컨트롤社, G-ELIT 정밀기계社 순으로 순회방문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0/10/86692/index.html)

5. 창업 지원 홈페이지 운영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오너 스페이스’(Business Owner Space) 홈페이지를 운영함.
 - 운영 목적은 창업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창업과 기업 운영의 적절한 절차를 알려주는 것임.
 - 이를 통해 도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박람회와 세미나 등을 홍보함.

 - 도시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창업과 성장임. 손쉽게 창업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정보기술이 결합할 수 있게 지원하면 창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www.businessownerspace.com/page/16)

6. 세금 체계를 게임으로 배우는 행사 개최 (도쿄都 이타바시區)

○ 시민에게 게임이나 퀴즈로 세금 체계를 홍보하는 ‘세금의 스탬프 랠리’ (Stamp Rally) 행사가 도쿄都 이타바시區 구민 축제에서 區 세무서 주최로 열림.

- 경찰서, 쓰레기 처리장, 레스토랑 중 어디가 세금으로 만든 시설인지 선택하는 게임이나 소비세율을 맞추는 퀴즈 등을 진행했음. 전자신고 시스템인 ‘e-Tax’ 소개 코너도 설치해 가족이 함께 세금에 대해 배워보는 기회로 활용함.

- ‘e-Tax’는 2006년부터 새로 시행된 시스템으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납세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수입, 세액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개인 인증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개인 데이터가 입력된 IC 카드도 사용할 수 있음.

·아직까지는 의료비 영수증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요미우리신문, 2007. 10. 21)

(www.yomiuri.co.jp/atmoney/m_guide/20060124.htm)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市, 200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형 꽃시장을 건설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

- 쿠리치바市, 2008년 하반기에 완공할 ‘그린 도로’ 주행 시내버스에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계획

복지 · 문화

7. 문화자산 디지털 보존사업 추진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문화자산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문화자산 디지털 보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문화자산을 초고정밀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 보존해 국내·외 연구자에게 학술자료로 공개하고, 오사카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자산 디지털 보존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공모해 3개社를 선정함.
 - 이 중 아스하社는 편의점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해 화상(畫像)을 사진 인화지에 인쇄해 판매하자는 독특한 제안으로 선정됨.
 - 오사카府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검토하고 있음.

(www.pref.osaka.jp/fumin/html/1728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자산 기록 및 보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해 오고 있음. 우리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 및 DB화 작업을 추진 중임.
- 오사카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민간에 사업을 이관했다는 점과 문화자산 이미지를 편의점 등에서 인화해 판매하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임.
- 우리도 디지털화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민간을 통한 효율적

인 디지털화와 다양한 사용처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8. 유기농식품 전문시장 완공 예정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브라질 최초로 유기농식품 전문시장을 2008년 3월 완공할 계획임.

- 유기농식품 전문시장이 완공되면 생산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쿠리치바市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기농식품 시장 면적은 총 3700㎡며, 주차장과 상점, 유기농식품 전문식당, 시청각실, 이벤트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2009년에는 ‘유기농 2008 국제포럼’이 쿠리치바市에서 개최될 계획임.

- 이 포럼에서 바이오 기술과 유기농식품 관련 기술, 정책 등이 논의됨. 市는 브라질 전 지역의 유기농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외국 사절단의 방문도 기대하고 있음.

(www.curitiba.pr.gov.br/Cidadaos.aspx?s=357)

9.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스포츠 프로그램 시행 (런던)

○ 런던개발청은 런던 시내 54개 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교실을 지원하는 ‘스포츠의 계절, 겨울’(Winter of Sports)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에 따라 런던市에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됨.

- 방과 후 스포츠교실은 영국 내 청소년 스포츠단체인 ‘Youth Sport Trust’와

런던개발청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 맞춰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임.

-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5~16세 유·청소년으로, 특히 스포츠 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을 중심으로 겨울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지도할 계획임.
- 학교 및 교사가 미처 손쓰기 힘들었던 장애인 유·청소년 등에게 전문적인 체육교육 혜택 기회도 줌.

- 런던시는 지난 2년간 여름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축적한 계절체육 진흥 프로그램을 겨울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적용함.
- 겨울 스포츠교실은 다수 학교가 체육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는 ‘학교 체육 파트너십’(School Sports Partnership)을 조직해 운영함으로써, 학교 간, 학교와 외부 스포츠교실 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런던 시내 유·청소년 체육문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114)

10. 비만 해결을 위한 미래전략 발표 (영국)

- 영국정부는 사회적 현안인 비만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비만 해결: 미래의 선택’(Tackling Obesities: Future Choices)을 발표함.

- 이 전략은 지난 40년간의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함. 현재 영국의 어른과 아이의 비만문제는 일상적인 문제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음.

- 이번에 발표된 전략서는 2050년까지 영국 성인 남성의 60%, 성인 여성의 50%, 16세 이하 어린이의 25%가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함.
- 비만은 당뇨, 심장쇼크, 심장 질환, 관절염 등 여러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함.
- 국가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약 11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보건시스템(National

Health Service)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함.

(s3.amazonaws.com/foresight/20.pdf)

11. 3살 미만 유아 보육기관 지원 확대 (베를린)

- 2007년 10월 9일 베를린 시의회는 베를린市 교육·학문·연구부 장관이 제출한 ‘아동 보육재정’ 관련 행정협정안(Verwaltungsvereinbarung)에 찬성함.
 - 연방정부와 시정부는 2013년까지 유치원과 유아원의 3살 미만 유아를 위한 주간보육 일자리를 수요에 맞춰 늘리기로 함.
 - 연방정부는 3살 미만 유아를 위해 2013년까지 약 75만 개의 주간보육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봄.
 - 현재 등록된 3살 미만 유아 중 35%가 추가 수요로 추정됨.
 -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정부의 3세 미만 유아 보육 일자리 증설에 21억 5000만 유로(약 2조 5800억 원)를 준비하고 있음.
 - 베를린市는 3살 미만 유아 보육시설 개선 의무가 있음.
 - 市는 다른 州와 달리 3살 미만 유아 중 대략 40%를 지원하고 있어 이미 평균 지원 쿼터를 초과함.
 -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시설 확충뿐 아니라 위생, 신축, 현대화, 시설 투자 등이 포함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0/09/86660/index.html)

12. 자녀양육 지원 상품권 배포 (도쿄都 분쿄區)

- 도쿄都 분쿄區는 자녀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녀양육 지원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5000엔(약 4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교부하는 것임.

- 이 상품권은 지정 취급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상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취급점으로 등록돼 있음.
 -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5개월이며, 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은 받을 수 없음.
- 분쿄區는 앞으로 상품권 취급점을 계속 늘려 나갈 방침임.



자녀양육 지원 상품권

(www.city.bunkyo.lg.jp/sosiki_busyo_kosodate_keizaishien_shienken.html)

13. ‘창조도시 교류·파견사업’ 시행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는 창조도시 요코하마 실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조도시 교류·파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3년째인 2007년에는 시민과 예술가의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단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요코하마 시내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단체가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중간지원단체를 방문하는 것을 지원하고, 방문처의 중간지원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심포지엄도 열 계획임.
 - 방문 도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독일 에센이 선정됨.
 -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각각 1987년, 2001년에 유럽 문화수도로 뽑힌 것을 계기로 창조도시 추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에센은 대규모 석탄유적을 활용해 예술, 디자인 등 창조산업 집적에 성공

한 것이 인정돼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됨.

(www.city.yokohama.jp/me/keiei/kaikou/souzou/new/071018.html)

도 시 환 경

14. ‘내 동네, 내 생활 프로젝트’ 실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공사담당국은 ‘내 동네, 내 생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市 환경국 및 공원 재단, 교통관리공사, 구청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음.
 - 관계자들이 동네를 돌면서 나무를 심거나 식물 생태를 관찰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벌임.
 - 보행로 보수공사 및 전기시스템 검사, 교통신호 및 조명 점검과 보수공사 등도 실시함.
 - 시민 대다수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 한 시민은 “나무를 심으면 동네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힘.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3462)

15. 산업폐기물 전자관리시스템 시행 (일본)

- 일본정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산업폐기물 관리표인 ‘마니페스트’(Manifest)의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불법투기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급률이 낮아 전자화 촉진을 모색하고 있음.
 - 2008년에 30%, 2010년에는 50% 달성을 목표로 함.

- 마니페스트는 배출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때까지 산업폐기물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보관해야 함.
 - 기존의 종이 마니페스트는 7매 한 묶음으로, 운반과 중간 처리 등 관련 업체가 각각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최종 배출 사업자에게 전달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마니페스트는 정보처리센터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업자가 마음대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마니페스트 전자화의 가장 큰 목적은 불법투기 방지임.
 - 종이 마니페스트는 위조가 쉽고, 마니페스트 관리를 맡은 배출 사업자가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이시카와縣은 전자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입료 등을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고, 업자를 위한 설명회도 열어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하지만 배출, 운반, 처리의 3개 업자가 모두 가입하지 않으면 전자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와 전자시스템을 병용하는 회사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요미우리신문, 2007. 10. 21)

16. 프레온 회수·파괴법 개정안 시행 (일본)

- 일본 환경성은 2006년 6월 2일 제정된, 특정 제품에 포함된 프레온 가스류 회수 및 파괴에 대한 법 개정안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임. 음식점의 냉장고나 사무실의 에어컨 등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프레온 회수·파괴법에 의거해 프레온 가스 회수가 의무화됨.
 - 회수 대상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는 패키지 에어컨, 업무용 냉동 냉장고,

- 냉동·냉장 진열장, 제빙기, 맥주 서버, 냉수기 등임.
- 가정용 냉장고는 가전제품 리사이클법, 자동차 에어컨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의거해 회수됨.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프레온 가스 회수를 위탁할 때 법에 근거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함.
-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를 정비할 때도 프레온 가스 회수를 都에 등록된 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함.
- 건물 해체 공사를 하청받은 업자는 건물 내 프레온 가스를 포함하는 기기유무를 확인해 결과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7/08/furon.htm)

17. 편의점과 ‘G30 에코 파트너 협정’ 체결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는 편의점 업체인 로손과 ‘G30 에코 파트너 협정’을 체결함.

- 요코하마市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슈퍼마켓과 백화점, 생활협동조합과 포장 용기류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행동 협정을 맺어 포장 용기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 2007년에는 명칭을 ‘G30 에코 파트너 협정’으로 바꿔 편의점을 대상에 포함해 협정 체결을 추진함.
- 현재 슈퍼마켓 20개社 171개 점포, 생활협동조합 1개 조합 55개 점포, 백화점 3개社 4개 점포, 편의점 1개社 5개 점포가 협정을 맺음.
- 협정을 맺은 사업자는 포장용기 감소, 환경과 재활용을 고려한 상품 판매 등에 노력해야 함.
- 요코하마市는 협정 체결 사업자의 활동내역을 市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배포해야 함.

도 시 교 통

18. 낮은 육교 교체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정보전시회 개최 (런던)

○ 런던시는 교통체계 개선 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견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제안한 개발방안을 예술가가 작품으로 제작한 뒤 대상 지역에서 3일간 전시회를 열어 공개함.

- 런던시 서부 악튼(Acton) 지역의 Perryn Road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낮아 런던교통공사가 육교를 허물고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주민설명회에서 안전 문제와 접근성 문제가 제기됨.

- 주민의견을 모아 첨단 조명장치가 설치되고, 자전거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설계안을 마련함. 주민의견을 다시 듣기 위해 새로운 설계안을 예술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제작해 3일간 해당 지역에서 전시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6220.aspx)

(www.tfl.gov.uk/a40actonbridges)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는 공공부문 디자인 개선노력을 인정받아 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ICSID)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World Design Capital) 2010'으로 선정된 만큼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조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

- 런던시의 육교 전시회와 같이 도시 시설물의 기능과 디자인을 민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정책(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은 서울시 시설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19. 교통흐름에 따라 조절되는 신호등 설치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모든 교통신호등의 신호 표시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市의 4385개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의 시간 조절을 위해 1만 5000억 달러(약 13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음. 신호등의 시간 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행시간이 16% 감소하거나 5~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市 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적어도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혼잡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시민에게 권할 수 있게 돼 신속한 교통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 사업은 자동차 엔진의 공회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해 교통체증 해소뿐 아니라 친환경적 측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주지사는 이 사업을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市의 교통흐름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순조롭게 바뀔 것이라고 말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synchronize17oct17,1,4978675.story)

한줄 뉴스

<베를린>

- 2007년 10월 26~28일, 유럽 최대 청소년 박람회인 '2007 YOU Berlin' 개최

- 市 문화담당부, 한 개 프로젝트당 최고 1만 유로(약 1200만 원)를 지원하는 2008년 문학 프로젝트 시상계획 발표

20. 도심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 건설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도심에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LA Live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노키아극장이 2007년 10월 18일에 문을 열었음.
 - LA Live 프로젝트는 약 1조 5600억 원이 투자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계획으로 노키아 극장 주변으로 리츠칼튼 호텔과 ESPN 방송국,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건설될 예정임.
 - 노키아 극장은 7100석 규모의 대형극장으로, 2007년 11월에 ‘American Music Award’ 시상식이 열릴 예정임.
 - 市 관계자는 노키아 극장을 중심으로 뉴욕市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같은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www.latimes.com/entertainment/news/business/newsletter/la-me-nokia19oct19,1,4570566.story)

21. 저가주택 공급의 사업성 검토양식 개선 (런던)

- 런던市는 신규 공급주택의 절반은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하게끔 규정한 ‘2004년 런던 도시계획’(London Plan)의 목표에 맞춰, 주택 개발업체와 설계·시공업체가 저가주택 공급에 따른 채산성을 맞춰볼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성 검토평가서(Financial Appraisal Toolkit)를 개선할 계획임.
 - 사업성 검토평가서는 건축업자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런던市의 저가주택 공급 할당량을 만족하면서 건축사업의 채산성도 유지하게 만든 평가틀로, 개선안은 민간업체 입장에서 편리성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추가될 예정임.

- 개별 개발사업마다 할당량과 개발방향을 협상·조정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공급주택의 32%가 저가주택인 성과를 보였음.
- 민간 컨설팅업체인 Three Dragons Consultancy社가 수탁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성 검토양식 개정안에는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이 도입되고 주택 구입능력 지수 등이 개발돼 반영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177)

22. 녹색지붕과 녹색벽 개발 계획 (런던)

- 런던市와 자치구는 녹색지붕과 녹색벽 개발 계획을 런던플랜과 자치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함.
 - 이 계획은 여러 자문위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녹색지붕 개발을 장려하고 자치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의 디자인 부서는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녹색지붕과 녹색벽을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힘.
 - 런던市 소재 건물 지붕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므로, 이 계획을 시행하면 기후변화 경감,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건물 외관 미화, 지속가능한 도시배수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2008년에 발간할 예정임.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45658/Panel-backs-roof-living-proposals)

방재 · 안전

23. 우수 방화(防火) 건물 인증제 실시 (도쿄)

○ 도쿄都是 건물의 방화(防火) 안전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량 방화대상물 인증제도인 ‘우(優) 마크 제도’를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2007년 9월 현재, 호텔과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400개소 이상이 인증을 받았음.

- ‘우 마크’를 받은 건물은 현관이나 입구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도쿄都 소방청이나 각 소방서에서도 공표함.

·이 제도의 대상 건물은 방화 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음식점, 영화관, 숙박시설 등 모든 용도의 건물임.

·인증기준은 소방법 등 법령 준수, 대피로 안전성 확보, 자위 소방대 유무 및 활동능력 확보, 과거 중대한 법령 위반 이력, 과거 법령 위반으로 인한 화재발생 여부, 적극적인 방화대책 실시 등임.



우(優) 마크

(www.koho.metro.tokyo.jp/koho/2007/10/yuumark.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에서 시행 중인 ‘우(優) 마크 제도’는 성능 위주 소방설계(PBD: Performance Based Design)의 우수 사례임.

·우리나라도 2008년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화재 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서울시가 세부지침을 확정하기 위한 모델로 도쿄都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8월부터 U-Korea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도 우(優) 마크 제도와 같이 건축 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함.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24. 긴급 지진속보 제공 (일본)

○ 일본 기상청은 2007년 10월 1일부터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진속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함.

- 속보가 나간 후 지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 초에서 수십 초의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출구를 확보하거나 책상 아래 숨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지진속보를 미리 제공할 경우 시민의 불안감 조성 및 업무 방해가 우려돼 그동안 보류돼 왔음. 그러나 건설 현장이나 높은 위치에서 장비 등을 운전하는 작업자 등의 안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 따라서 고도(高度) 작업자용과 일반용으로 지진속보를 나눠 제공하기로 함.
 ·일반용 지진속보는 지진파가 2개 지점 이상의 지진 관측점에서 관측되고 최대 진도가 5 이상으로 추정됐을 때 발표함.
 ·고도 작업자를 위한 지진속보는 진도가 4 이상일 때부터 속보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는 기준을 진도 3으로 바꿀 계획임. 속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각 가정용 단말기나 사업자용 단말기를 통해 전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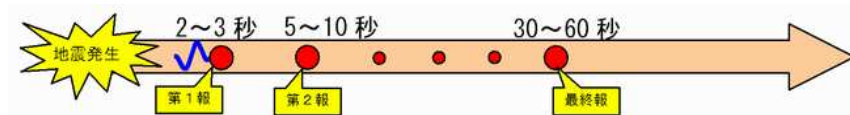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한 여행 잡지의 조사 결과 미국 도시 가운데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선정

<일본>

- 도쿄都 지바市, 꽃을 즐기는 네트워크 결성 및 교류를 목적으로 '꽃의 도시, 지바' 사업 전개

- 오사카府, IT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중·일 IT 비즈니스 포럼' 개최



고도(高度) 작업자를 위한 경보체계

(www.seisvol.kishou.go.jp/eq/EEW/kaisetsu/eew_naiyou.html)